

추미애 “민주, KBS 통합징수 내로남불... 셀프 프레임을 빠져”

‘내부 총질러’ 면모 과시

민주 “수신료 통합징수 당론으로 하는게 왜 내로남불?”

‘문·이낙연, 사퇴 압박’ 발언엔 “자제해야” 한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행보를 두고 “셀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분리 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통합 징수를 고수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스스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한 데 이어 민주당까지 공격하며 ‘내부 총질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향해 “셀프 프레임에 갇히면 쫓겨 없어 번덕 부리는 당으로 오해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KBS가 정권 내팔수 방송이 돼 공영성 상실 때문에 시청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 내팔수가 되려는 검폭장면 압력을 거부하고 공영성을 관찰하겠다는 KBS를 지지하고 수신료 통합 징수를 당론으로 하는 게 왜 입장 바뀐 내로남불인지 도대체가 납득

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당 편이 되라는 회유가 아니라 공영성과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셀프 프레임’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반대한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큰 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출속 추진에 반대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출연해 “전직 대통령과 당대표를 저격하는 게 어떻게 친명 출사가 되느냐”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하는 때에 지금 과거를 파헤치는 건 당 단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당내에선 계파와 관련 없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내부 갈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당 원로인 박지열 전 국정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이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돼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가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



너럭바위에 앞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에 앞둔 채 생각에 잠겨있다.

이낙연 전 총리, 김해 봉하·양산 평산 방문

봉하마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아 참배

양산 평산마을서 문 전 대통령 예방, 대화 나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운영한 민주당 의원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평산마을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예방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35분께 예방을 마친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지 없었지만 서로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옆에 있던 윤 의원은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탰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당부한 게 있었나고 묻는 질문에는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권유로 금정산성 마걸리 5명가량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마걸리를 먹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다. 원래 점심이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다. 봉하와 양산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총리는 전임 정부를 겨냥하며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언급)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

시20분께 검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현장에선 지지자 50명 가량이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총리 내외를 맞이했다. 이 전 총리는 일일이 손을 내밀어 이들과 악수했다.

현회와 분향을 한 뒤 노 전 대통령 묘소 앞으로 걸어가던 이 전 총리는 해설자의 설명이 끝나자 묘를 붙잡고 절을 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참배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총리는 방명록에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방명록을 작성하기 전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굴비 선물을 들고 사저로 들어가 권양숙 여사를 약 30분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부를 여쭙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담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현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 현수막에 ‘사람사는 세상’(이란 문구)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고도 했다. /뉴스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운영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오세환 의원)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조민규 의원)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발의 임종훈 의원), 고창군 농촌오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선덕 의원) 등 7건, 총 12건의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중에서,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차남준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박성만 의원, 임종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민규 의원, 최인규 의원, 오세환 의원, 이선덕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더불어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 전성 확보 결의안은 13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에 조성... 균형발전 기여”

도의회 특위, 산업부 방문
핵심 관계자들에 건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유치 기원 캠페인도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은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알리고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실 양기욱 국장 등을 면담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산자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을 건의했다.

통해 소재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CP100과 RE100 실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180만 전북도민의 열원을 담아 한바탕 한뜻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